

# “10년 전 박람회와 다르다” 순천만정원박람회 ‘구름 인파’

### 평일 5만명 개장 후 3일간 31만2234명 방문...매출도 11억 넘어 체험형 숙박 ‘가든스테이’·박람회장 밖 조성 오천그린광장 등 인기 주차장 확대·안전사고 예방 시스템·불법 노점상 단속 등 환경 개선

7개월 대장정의 막이 오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가 평일에도 5만명의 구름 관중을 부르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월요일이었던 지난 3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료 입장객은 4만93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 치른 정원박람회 개장일 입장객(3만1553명)보다 2만명 가까이 많은 수치다.

이번 정원박람회는 개장일 15만3960명과 2일 10만8924명 등 사흘간 입장객이 31만2234명에 달한다.

입장권 판매액과 국가정원박람회 오가는 정원드림호, 식당·기념품 매출액은 사흘간 11억315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하루 매출액만 해도 2억 8000만원에 달한다.

정원박람회가 주말이 아니어도 5만명 넘는 관중을 움직이는 비결은 10년 전 박람회와 다른 차별점에 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의 유료 권역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외에도 순천을 찾는 누구나 만끽할 수 있는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를 박람회장 인근에 조성했다.

이곳에는 사계절 맨발로 잔디밭을 걸을 수 있는 2.5km 어싱길도 조성됐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개막을 기념하며 지난 31일 시민 800명과 ‘오천그린광장 어싱길 맨발걷기’ 체험을 진행하며 행사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오천그린광장 외에도 순천만습지에는 4.5km 길이에 달하는 어싱길 구간 3곳이 있다. 벚꽃이 아름다운 랍사르길과 세계 유산길, 갯골길 등이 휴식 공간과 잘 어울려 있다.

정원박람회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scmeta.kr)에서도 미리 체험할 수 있다.

생태정원으로 꾸며진 순천 곳곳을 옮겨놓은 가상 공간에서는 오천그린광장의 야경과 순천만국가정

원, 습지권역, 어싱길 등을 구경할 수 있다. 체험형 숙박시설인 ‘가든스테이’의 정원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주말과 휴일, 평일 언저리 방문객들이 원활하게 박람회를 만끽할 수 있도록 편의 대책 부문에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28만 순천시민들은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자전거 타기·보행은 권장하는 ‘대자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주차장은 10년 전의 134% 수준으로 확대했다.

박람회 개최 40일 전부터는 ‘불법 노점상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대책도 눈에 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에서 최장기간 개최되는 행사다. 개장 전부터 많은 관람객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입장객 집계 체계, 안전드론(무인 비행기), 착용형 CCTV 등 최첨단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순천시는 이미 10년 전, 국내 최초로 6개월이라는 기간 국제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촘촘한 준비를 해왔다”며 “순천의 얼굴이 될 품격 높은 박람회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박람회의 표준을 제



7개월 대장정을 시작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평일인 지난 3일에도 5만명의 관중을 움직였다. 순천만국가정원 안 네덜란드 정원. <순천시 제공>

시하겠다”고 말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산다’를 주제로 오는 10월31일까지 214일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순천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국제 크루즈선 여수항 입항...3년 3개월만에

### 여수·순천 등 주요 관광지 탐방...크루즈 관광활성화 기대

여수항에 3년 3개월 만에 첫 국제 크루즈선 ‘실버 위스퍼’가 입항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30분에 2만8258t급 국제크루즈선 ‘실버 위스퍼(Silver Whisper)호’가 미국·유럽권 승객 등 모두 680여 명을 태우고 여수에 도착했다. 코로나19로 입항 중단 후 3년 3개월 만이다.

‘실버 위스퍼 호’는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오사카, 후쿠오카 등을 거쳐 여수항에 10시간가량 머문 뒤 일본 나가사키, 베타 등을 거쳐 도쿄로 귀항할 예정이다.

시는 크루즈 입항을 위해 전라남도관광재단, 여수관광항만공사 등과 협의해 여수시립국악단 취타대의 환영 행사부터 포토존 설치, 특산품 판매장 운영, 영어 통역 지원, 퓨전국악단 짝이의 환송 공연까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특히 승객들이 여수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한 무료셔틀버스를



4일 여수항에 크루즈선이 입항하자 여수시립국악단 대취타가 환영연주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운영했으며, 승객들은 박람회장 스카이다워를 비롯해 오동도, 이순신광장 등을 둘러봤다. 일부 승객들은 순천정원박람회장, 보성 녹차밭, 선암사 등을 둘러봤다.

여수항을 찾는 대형 크루즈선은 이번 입항을 시

작으로 5월에 포르트 선사 ‘리 소레알’ 호가, 10월에는 ‘실버 위스퍼’호가 재입항하면서 승객·선원을 포함해 약 1700 명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곡성 ‘고향사랑기부제’ 빛낸 소액 기부

### 관광객들도 기부 잇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석 달 동안 곡성군 기부자 92%가량은 10만원 미만 소액 기부를 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곡성군이 기부자 유형을 분석해보니 곡성이 고향인 다른 지역 거주민뿐만 아니라 여행으로 곡성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기부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촉진해 도시와 농촌의 연결성을 회복함으로써 지방소멸을 막고 상생을 이끄는 촉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1@kwangju.co.kr

## “흙 살려 구례 경제 살린다”

### 구례군, 7일 전국 첫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

“흙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구례군이 오는 7일 오후 탄소 절감과 생태농업의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을 개최한다.

흙 살리기 선포식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자연생태지역 구례군이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전 세계를 향해 손짓하는 움직임이다. 흙을 살려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생태농업경제 복원을 전 세계에 선포한다.

선포식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국내 정관계와 학계, 농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선포식에서 정소년의 흙 살리기와 환

경의 중요성에 관한 호소문 낭독과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구가 산다’는 취지의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언문’을 발표한다.

군은 선포식을 시작으로 ▲생명을 살리는 흙의 소중함과 미래의 농업 방향 교육 ▲흙 살리기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개최 ▲흙 살리기 발전계획 수립과 시책 발굴 등 다양한 흙 살리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거대한 탄소 저장고인 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생태농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영위하는 새로운 생태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러 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 ‘보성600사업’ 스타트...아름다운 보성 만든다

보성군이 ‘2023년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을 시작했다.

보성600사업이란 보성군 전체 600여 개 자연마을을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어나가는 주민형 마을가꾸기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보성600 사업에는 지난 3년간 409개 마을, 763개 사업이 진행됐다. 올해는 231개 마을이 참여한다.

올해 보성600사업은 지난 3년과 달리 기존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 된다. 고사 혹은 파손된 기

존 사업장을 보식·보수하고 제조작업을 진행하는 등 유지관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보성군 전 지역에 보성600사업을 참여하고 확장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부터는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을 잘 가꾸고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아름답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성군이 앞장설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첨단우리병원**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